

은행株를 향한 엇갈린 시선

“모멘텀 없어 투자매력 ↓” vs “지나치게 저평가”

주요은행주 한달간 변동률 -12.27%
2분기 실적 전년비 감소 전망 지배적
추가충당금 충분히 감내 가능 의견도

하반기 은행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둘로 나뉘고 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며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는 비판론과 유동성과 배당이 불려온 기대감에서 비롯된 낙관론이 동시에 나온다. 주도주 자리를 차지한 언택트(Untact·비대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고 평가되는 은행주의 소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은행주는 최근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은행주 7종목의 전날까지 최근 한달 간 변동률은 -12.27%였다. 최근 은행권 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무풍지대로 평가되며 상대적으로 양

〈주요 은행 7종목 주가 하락률〉

은행명	주가 하락률(%)
KB금융	-8.25
하나금융지주	-13.69
신한지주	-13.77
우리금융지주	-12.44
기업은행	-16.02
BNK금융지주	-10.75
DGB금융지주	-12.27

*최근 한달간 /한국거래소

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KB금융이 -8.25%로 가장 선방했다.

기업은행이 16.02%의 내림세를 보이며 가장 저조한 은행주로 꼽혔다. 잇따른 유상증자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차 추경안에 4845억원 규모의 기업은행 증자금액이 포함됐다. 올해 벌써 4번째다. 3차배정 유상증자로 이뤄져 소액주주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

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KB금융과 함께 은행주 4대장으로 꼽히는 신한지주(-13.77%), 하나금융지주(-13.69%), 우리금융지주(-12.44%) 역시 모두 10% 이상이 빠졌다. 개인투자자는 같은 기간 5000억원에 가까운 은행주를 사들였다. 2076억원 어치를 사들인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하나금융지주(1575억원), KB금융(744억원), 우리금융지주(225억원) 순으로 매수했다.

부진 여파는 2분기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적이 전년보다 부진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이 깊어지며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산가격 불안정성이 커질뿐더러 금융 건전성도 훼손돼 디플레이션 압력 증대와 금리하방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은 그에 따른 마진 훼손을 입게 된다. 그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은행주에 대한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잇따른 사모펀드 투자손실에 따른 일회성 비용도 추가적인 위협 요소로 꼽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주가 부진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용대출이 늘어난 대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부동산 관련 규제 이슈가 계속되는 한 당분간 은행주에 대해 보수적 접근을 권유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이라는 정반대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보수적 충당금 적

립에 따라 기말 혹은 내년 상반기 배당 성향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실적이 감소하지 않겠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모펀드 손실에 대한 추가 충당금이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 많아야 1000억~2000억원 수준”이라며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손충당금은 은행이 대출을 내준 뒤에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예상되는 부실 채권을 미리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용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실무자에 2분기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서 연구원은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은행주가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우리가 지나치게 반영돼 주가가 낮게 책정돼 있지만 2분기 실적발표 시점에 맞춰 많게는 100%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허인, 코로나 조기종식 응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KB국민은행장〉

코로나19 극복 위한 연대 메시지
외교부서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

KB국민은행은 허인 행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지난 3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기도하는 두 손과 비누 거품이 더해진 그림에 ‘견뎌내자(Stay Strong)’라는 문구를 넣어 개인 위생관리를 코로나19를 이겨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팻말을 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 세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허 행장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코리아 김연희 대표파트너의 지명을



허인 KB국민은행장(가운데)이 글로벌사업그룹 직원들과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참여했다. /국민은행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글로벌 캠페인의 의미를 담아 대표 글로벌기업인 최기영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 이성열 SAP코리아 대표이사, 최인혁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한상미 기자 smahn1@

허 행장은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이 국민들과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바란다”며 “KB국민은행도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화건설 안전사고 방지 ‘포레나 안전도어’

가정서 발생한 손끼임 사고 45%
틈 없는 비노출형 경첩 개발 완료

한화건설은 9일 어린이, 노약자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포레나 안전도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2014~2018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손끼임사고 총 8936건 중 45.2%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가정 사고의 과반수 이상이 영유아였으나, 미관 및 시공 절차상의 이유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화건설은 손끼임 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 1년간 안전도어의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문과 문틀사이 틈이 발생하지 않는 비노출형 경첩

개발을 완료했다.

기존제품 대비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문의 디자인을 그대로 살리는 획기적인 성능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포레나 안전도어는 ‘에이치쿠도스’와 협업을 통해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신규 판로 개척에도 양사가 적극 협력해 새로운 동반성장의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레나 안전도어는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포레나 영동포’를 시작으로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포레나 단지에 적용된다.

한화건설은 30만회 개폐테스트를 통



한화건설이 개발한 포레나 안전도어 이미지. /한화건설

과한 포레나 안전도어 상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 중이다.

한화건설 유통상 건축사업본부 본부장은 “고객의 안전을 고려한 기존 샤워부스 및 중문 안전유리, 대피공간 세이프커어 사인에 이은 이번 ‘포레나 안전도어’의 개발을 통해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자신”

IPO 간담회

제놀루션

“유전자 분야 글로벌 리더 도약”
세계 30여개 국가 대리점 확보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히는 제놀루션이 큰 폭의 외형성장을 자신했다. 제놀루션은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유전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며 코스닥 이전 상장에 따른 향후 전략을 밝혔다.

2006년 설립된 제놀루션은 분자진단을 주심으로 한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유전자 간섭(RNAi) 합성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코넥스 시장엔 2015년 상장했다. 이후 성장성특례제도를 통한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 신용인증업체 이크레더블로부터 A등급 평가를 받기도 했다.

코로나19는 기회가 됐다. 바이러스와 추출 전문 기술이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주력사업인 체외진단 부문에서 핵산 추출제품의 주문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분기에 기록한 매출액 33억원은 지난해 전체 매출(38억원)의 83.6% 수준이다.

김기욱 대표이사는 “핵산 추출장비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시약의 매출액도 비례하는 구조”라며 “올해 매출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295억원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놀루션의 핵산 추출장비를 사용할 경우 시약 역시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상대로라면 지난해보다 7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게 된다.

김 대표는 자사의 핵산 추출장비의 강점을 3가지로 요약했다. 작은 크기, 월등히싼 가격, 빠른 속도다. 그는 “한



김기욱 제놀루션 대표이사가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업공개(IPO)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이전 상장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시간에 96개 샘플을 처리하는 경쟁사 장비와 달리 제놀루션 제품은 15분이면 48개 샘플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코로나19 진단 건수 150만건 중 절반 수준인 75만건 이상이 우리 제품을 이용해 RNA를 추출했다”고 강조했다.

제놀루션은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 대리점을 확보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수익률도 강점으로 꼽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제놀루션의 올해 영업수익률은 50%에 달한다. 이성희 전무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3년은 코로나19 이슈가 배제되더라도 영업수익률 4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새로운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농명 생명공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기초 연구를 위해 우선 10mg 연구용 합성서비스를 공급하고 이후 사업화를 위한 톤 단위 공급 시설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공모 주식 수는 총 80만주다. 희망 공모가격 범위는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 공모 예정 금액은 96억~112억원이다. 8~9일 이틀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고, 오는 14~15일 일반 청약용 거처 24일 코스닥시장에 이전 상장한다. /송태화 기자·송유진 인턴기자